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 2021. 3.

국립국어원 2021. 3.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2021. 3.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국립국어원으로

실전 국어 표기법(1) 어느새 사라진 동네 상점
‘요새, 그새, 밤새, 어느새, 금세’

국어원 소식(1) 보도자료 쓰기, 이제 어렵지 않아요!

우리말 다듬기(1) 사람들이 모이는 곳-핵심 점포

100년 전 우리말 풍경 ‘메주’와 ‘치즈’의 만남

실전 국어 표기법(2) 벚꽃의 계절이 왔어

읽기 좋은 글, 듣기 좋은 말 ‘너무 잘한 것 같다’라니요?

사전 두 배로 즐기기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형 사전, “우리말샘”

국어원 소식(2) 우리 국민의 언어 의식, 현재 모습은?

우리말 다듬기(2) 비대면 시대의 소비 실시간 소통 판매

우리말, 그리고 사람 문해 교육으로 세상 보는 눈을 뜨게 한다

목차

쉽표, 마침표. | 2021. 3.

국어 배우기

- 2 실전 국어 표기법 어느새 사라진 동네 상점- ‘요새, 그새, 밤새, 어느새, 금세’
- 4 벚꽃의 계절이 왔어
- 6 읽기 좋은글, 듣기 좋은말 ‘너무 잘한 것 같다’라니요?
- 10 사전 두 배로 즐기기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형 사전, “우리말샘”

국어 알리기

- 14 국어원 30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국립국어원으로
- 18 국어원 소식 보도자료 쓰기, 이젠 어렵지 않아요!
- 20 우리 국민의 언어 의식, 현재 모습은?
- 26 우리말 다듬기 사람들이 모이는 곳-핵심 점포
- 28 비대면 시대의 소비 실시간 소통 판매

국어로 바라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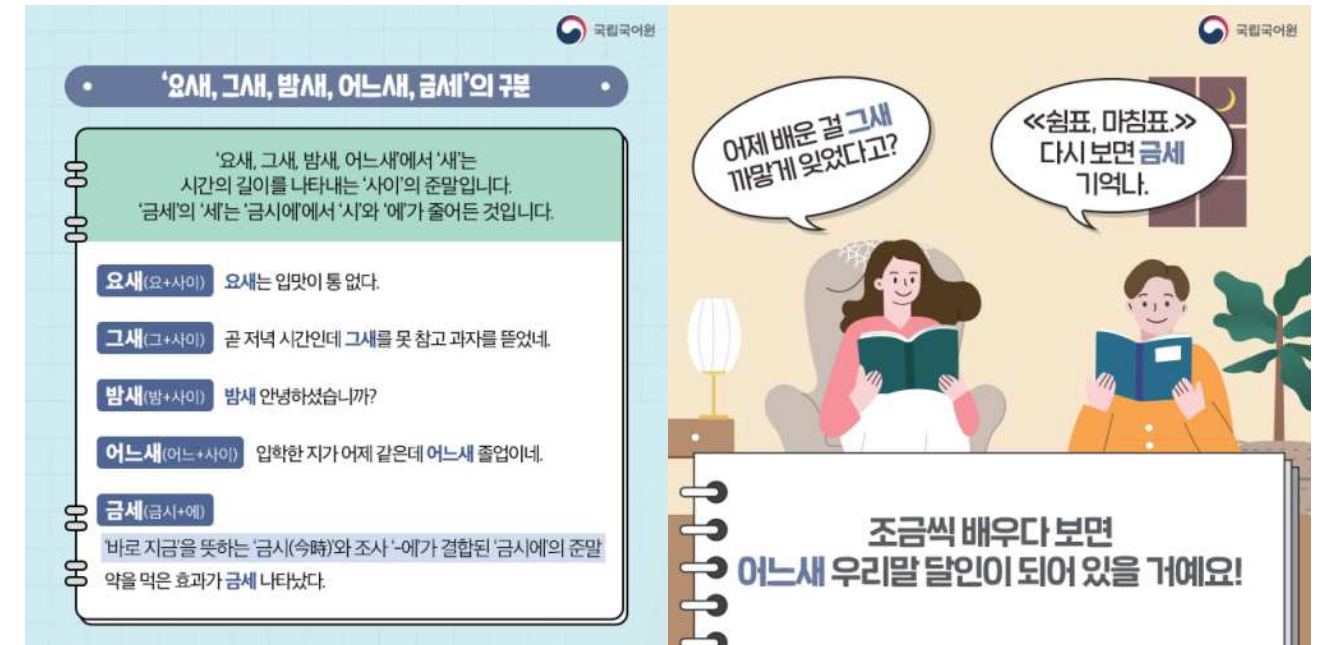
- 30 100년 전 우리말 풍경 ‘메주’와 ‘치즈’의 만남
- 34 우리말, 그리고 사람 문해 교육으로 세상 보는 눈을 뜨게 한다.

국어로 함께하기

- 42 기획 행사 독자 참여 행사
- 46 독자 참여 행사



어느새 사라진 동네 상점 요새, 그새, 밤새, 어느새, 금세



벚꽃의 계절이 왔어



벚꽃의 계절이 왔어

벚꽃은 올해도 어김없이 봄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맘때면 벚꽃을 활용한 **마케팅**이 활발해지기도 하는데요.

마케팅 ✕ ▶ 마케팅 ○

벚꽃 **컨셉** 제품에 '체리블로섬'이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고는 하죠.

컨셉, 컨셉트 ✕ ▶ 컨셉트 ○ 체리블라섬 ✕ ▶ 체리블로섬 ○

커피 전문점에서는 봄에만 파는 **체리블로섬 라테**, **체리블로섬 마키아토**를 맛볼 수 있고요.

라떼 ✕ ▶ 라테 ○ 마끼아또 ✕ ▶ 마키아토 ○

봄에만 살 수 있는 예쁜 색깔의 **체리블로섬 섀도**도 있어요.

섀도우 ✕ ▶ 섀도 ○

올봄에는 또 어떤 제품을 만나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헛갈리는 외래어, 이렇게 적어요!

마케팅	→	마케팅
마끼아또	→	마키아토
라떼	→	라테
섀도우	→	섀도
체리블라섬	→	체리블로섬
컨셉, 컨셉트	→	컨셉트

‘너무 잘한 것 같다’라니요?



글: 이미향(영남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시장을 지나가는데 어디에선가 고소한 냄새가 발걸음을 잡는다. 고개를 돌리니 가게 앞 진열장에 참기름병이 나란히 놓였다. 이름표도 없는 옥색 병 앞에는 ‘진짜 100프로 순참기름’이란 말이 대문짝만 하게 적혀 있었다. 참기름만 담았다는 심정을 강조하고 싶었을 노부부의 마음이었으리라. 1차로 ‘순(純)’을 덧붙이고 2차로 ‘100프로’라고 강조하고, 3차로 ‘진짜’를 동원해야 할 만큼 심히 강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시대가 곧 서로를 못 믿는 시대라는 속뜻으로 읽혀, 마음에 큰 돌 하나가 달린 듯 했다.

강조해야 살아남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공짜도 ‘공짜’여야 눈 돌리고, 사랑보다는 ‘싸랑’이 멋있고, 새것이나 생것은 ‘쌔’, ‘쌩’이어야 알아듣는다. 오죽하면 한국어를 제대로 배운 외국인들이 책에서 배운 ‘공짜’가 맞는지, 길거리 유리창에서 보는 ‘공짜’가 맞는지 헛갈려할 정도이다. 그중에서도 한국 사람이 왜 ‘공짜’를 알면서도 ‘공짜’라고 쓰고 있는지 궁금해하는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느 사회에나 있는 강조법 중 하나라고 답하곤 한다.

우리가 흔히 쓰는 강조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우선 첫소리에 힘을 줄 때가 많다. 경험담을 과장스럽게 하는 사람의 말에서 ‘ㄱ, ㄷ, ㅂ, ㅅ, ㅈ’가 많이 들린다. 이러한 된소리가 청소년들의 은어에 특히 많은 편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원래 쓰던 말에다가 인상을 강조하는 말을 덧붙여 쓰는 것이다. ‘최(最)’나 ‘초(超)’ 같은 말이 그것이다. 그런데 강조하기란 습관이 되기 쉬워 서인지 곧 익숙해지면 또 다시 ‘슈퍼 울트라 초 무엇’과 같이 여러 말을 겹쳐서 쓰고야 만다.



사실 ‘슈퍼, 울트라, 초’는 한때 지나간 유행어다. 지금은 ‘핵’의 시대인 듯하다. 인터넷을 들여다보면 ‘핵 맛있고, 핵 예쁘고, 핵 좋은 것’이란 표현이 넘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오랫동안 낮은 품질을 이르던 ‘개’가 ‘핵’과 같이 쓰이는 점이다. ‘개’는 헛되고 쓸데없는 것,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것을 이르는 표현이었는데, 청소년 은어에서 ‘개이득’은 큰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니 어떤 연유일까? 신문 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7명 이상이 신조어와 유행어, 줄임말을 사용한다. 청소년의 신조어와 유행어는 단순히 유행을 따르거나 습관적인 것만이 아니다. 청소년은 그들의 말을 일종의 문화를 드러내는 말로 인식하고 있다. ‘개’의 의미도 청소년의 문화 정체성으로 재구성된 것인가?

또 다른 말들로 ‘진짜, 정말, 되게, 너무, 엄청’ 등등 강조의 부사가 있다. 그중에서도 ‘너무’가 가장 흔한 말이다. 우리말 ‘너무’는 ‘넘다’에서 온 것이니만큼, 말 그대로 ‘일정한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상태로’라는 뜻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무 춥다, 너무 힘들다’와 같이 부정적 상황에 쓰여야 맞는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해요.’처럼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과하게 표현하는 ‘너무’가 선택받은 것은 그만큼 언중들이 강조에 익숙하다는 뜻이다. 최근 어느 방송에서 ‘그거 엄청 사실인데’라는 말까지 들었다. ‘엄청 사실’이 있고, 엄청나지 않은 사실도 있는 것인지 순간 혼란스러웠다.

흥미로운 점은 강조하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면서도, 말끝은 얼버무리고 마는 현상이다. ‘영화가 엄청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은 흔히 듣는 것이지만, 엄밀히 말해 틀린 표현이다.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체가 곧 자신인데 굳이 남의 생각을 추측하듯 표현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오늘 과장님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는 더욱 어색하다. 잘한 점에 대해서는 ‘지나치다’고 평가하고, ‘잘했다’는 의견은 추측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이라고 운을 떼는 표현에도 자신을 숨기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굳이 어떤 경우를 특정하여 말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저는’이라고 해도 소통에 문제가 없을 때가 많다. 그런데도 ‘단지 어떤 경우’로 제한하는 이 말은 마치 자신을 보호하고자 성벽을 두른 느낌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말 습관을 거의 지각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새 중복 표현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란 말마저 생성해 낸다. 강조만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얼버무림의 정도도 더 심해질 수 있다. 어쩌면 사람들의 심리에는 강조와 책임 회피가 힘을 겨루며 같이 작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요즘 누리소통망에서 한국말에 대한 관심이 높다. 외국인들은 한국말을 ‘습니다의 언어’라고 말한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 말끝의 ‘습니다’만 들린다는 것이다.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말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실이었다. 말이란 그 시작과 끝 온통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고스란히 내비치는 거울이다. 이러할진대 말의 습관은 자칫 자신을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출 수도 있지 않은가? 오늘 내가 한 말은 어떠했던지 스스로 물어본다.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형 사전, “우리말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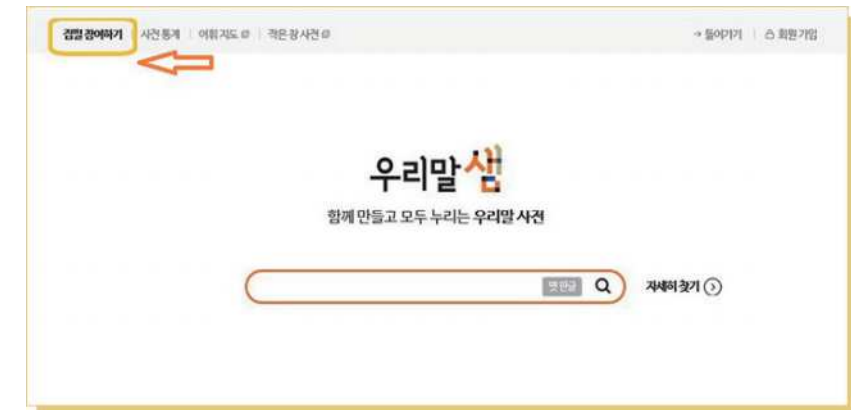
글: 이운영(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두껍고 무거운 종이 사전이든 인터넷 창을 열어 검색하는 온라인 사전이든, 단어의 뜻이나 표기법이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본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있을 것이다. 사전 안에는 단어와 단어의 뜻, 발음, 원어, 용례 등의 다양한 정보가 빼곡하게 들어 있다. 그런데, 이 많은 내용은 도대체 누가 다 만든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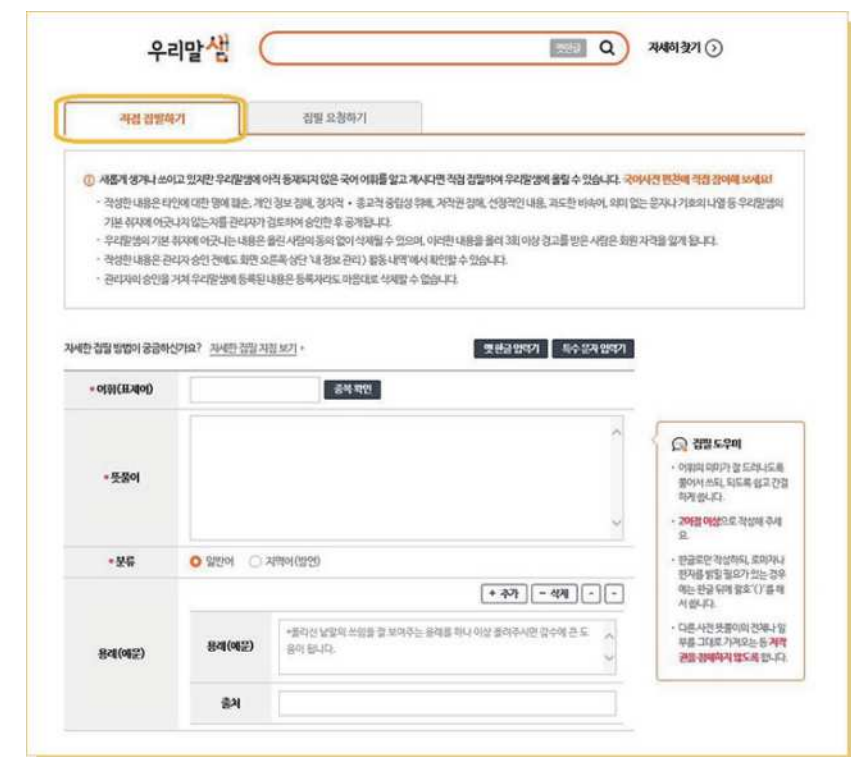
기존의 사전은 국어학이나 사전편찬학, 그리고 해당 내용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수많은 단어를 수집하고, 그중에 사전에 실을 단어를 고르고, 거기에 맞는 뜻풀이와 용례를 만들어 넣는다. 정확한 정보를 넣기 위해서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계속해서 수정한다. 종이 사전을 떠올려 보자. 마치 빈 공간 하나 허투루 남기지 않겠다는 것처럼 얇디얇은 종이의 앞뒷면에 글자가 가득 차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영화나 소설에서도 보았듯이 사전은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긴 시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탄생한 결과물이다.

지금도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 바뀌고 그런 세상을 표현하는 말 역시 새로 만들어지고 또 사라진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말의 변화를 포착해서 사전에 담아내기에는 버거운 점이 많아지고 있다. 한정된 수의 전문가들만으로 제한적인 지면에 변화하는 언어의 세계를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만든 것이 바로 “우리말샘”이다.

이전 사전들이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서 다시 출간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면, “우리말샘”은 그 시차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사전이다. 사전에 아직 실려 있지 않은 말을 발견한다면, 이제는 전문가가 아닌 누구라도 직접 “우리말샘”에 그 내용을 올릴 수 있다. “우리말샘”을 개방형·참여형 사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우리말샘”에서 ‘집필 참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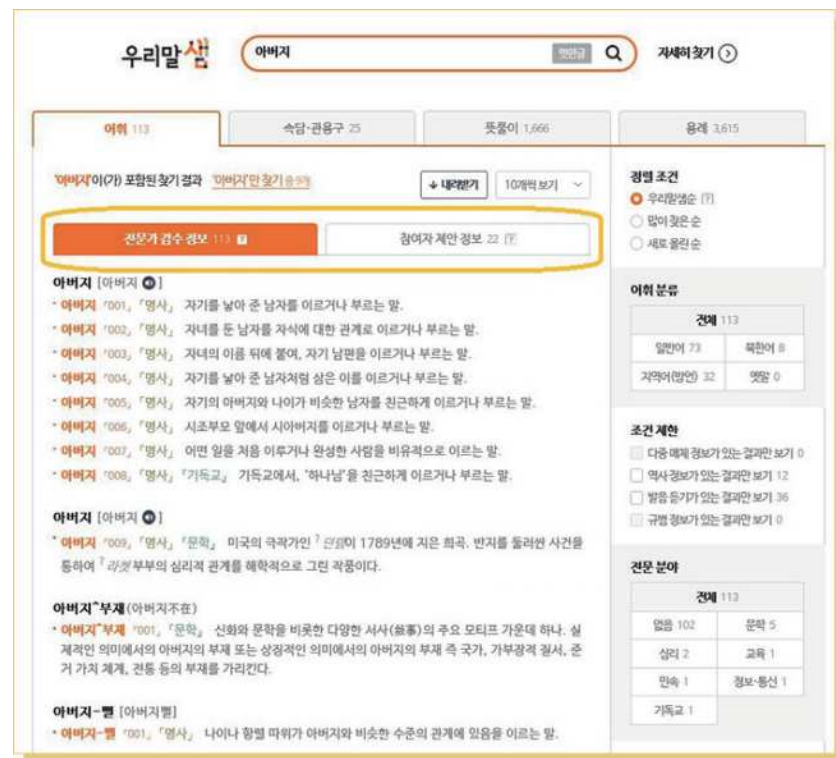


▲ “우리말샘” ‘집필 참여하기’ 화면

새롭게 생겨 널리 쓰이고 있지만 “우리말샘”에 아직 등재되지 않은 어휘를 올릴 경우, 위와 같은 화면을 통해서 이용자가 직접 사전 내용을 집필할 수 있다. 어휘(표제어)와 뜻풀이는 사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이용자가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일반어’인지 ‘지역어(방언)’인지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이 말이 실제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말인지를 보여 주면 그 단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용례(예문)’도 추가한다면 좋다. 그 외에 품사, 원어, 발음 표기, 전문 분야 등의 정보 역시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이용자가 추가로 집필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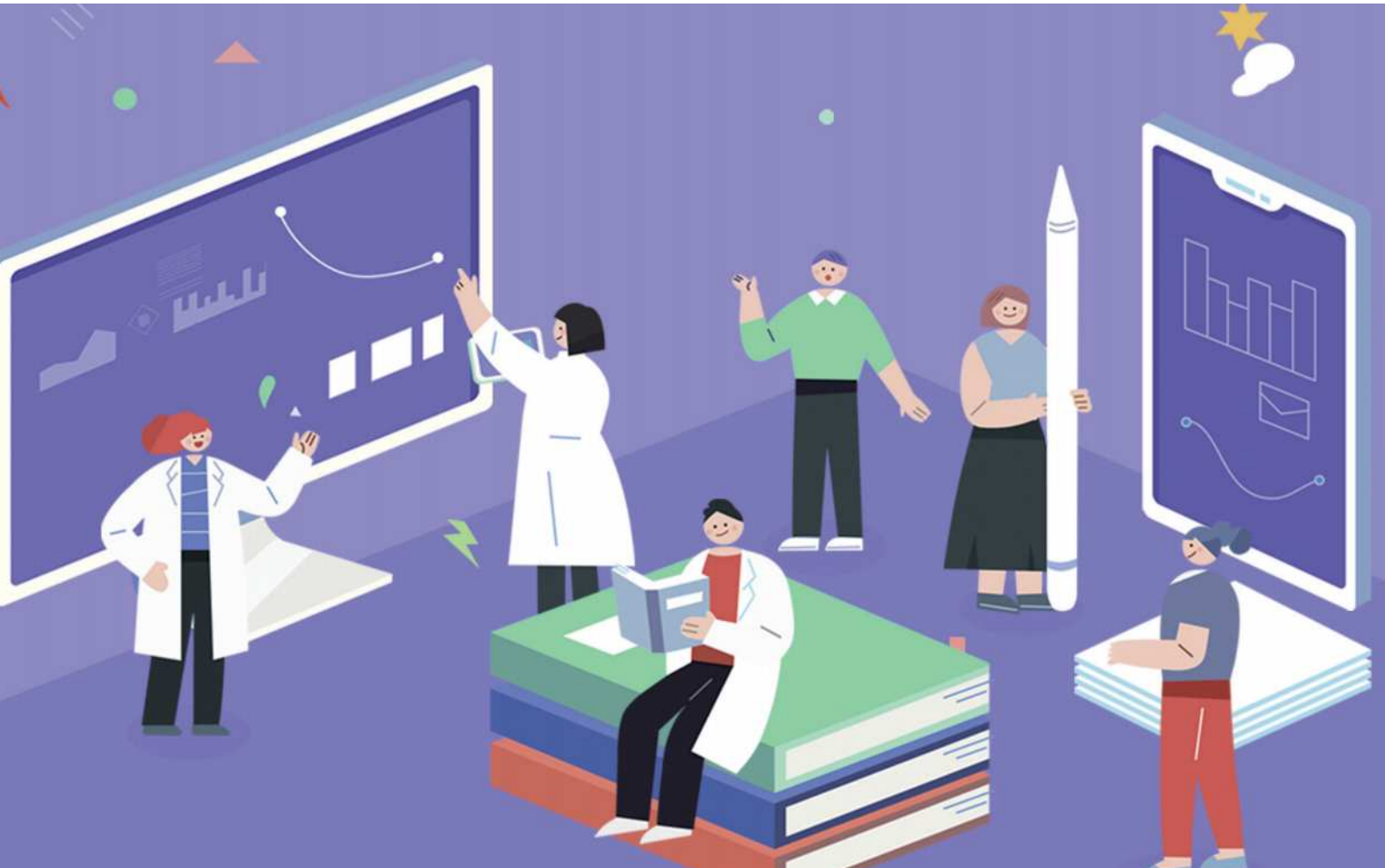
실제로 2020년 한 해 동안 이용자들이 사전 집필에 참여한 건수는 약 8만여 건으로, 이는 2019년 대비 41% 증가한 수치이다.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형 사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용자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물론 이용자가 집필한 내용이 모두 사전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치적·종교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경우, 개인 정보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의미 없는 문자나 기호를 나열한 경우 등 몇 가지 기준에 따라 해당 내용의 등록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다. 검토를 거친 내용은 표현이나 표기, 전문 분야 내용과 관련된 전문가 감수 과정을 거친다. 기존 사전과 다르게, 새로운 정보가 사전으로 들어오는 ‘입구’는 넓게 넓혀 그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도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뒤이어 둔 것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다른 개방형 사전이 이용자 참여로만 정보를 확장하고 갱신한다면, “우리말샘”은 이를 ‘전문가 감수 정보’와 ‘참여자 제안 정보’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말샘”은 이용자와 사전 전문가의 협업으로 끊임없이 다듬어지는 ‘진화하는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 감수가 완료된 ‘전문가 감수 정보’ 역시 다시 다른 이용자에게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소수 전문가들에 의해 정밀하고 체계적이지만 폐쇄적인 정보를 담아내는 기존 사전과 달리, 여러 사람의 참여와 지식으로 계속해서 덧대고 보완하며 변화해 가는 사전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말샘”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이력으로 남아 공개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우리말의 역사를 담은 소중한 정보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우리말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참여하여 함께 기록을 남겨 보는 것은 어떨까.



▲ “우리말샘”의 ‘전문가 감수 정보’와 ‘참여자 제안 정보’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국립국어원으로



국립국어연구원은 2004년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국립국어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국가 수준의 거시적인 언어 정책 수립에서부터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자세한 기준 제시까지 언어 정책 수립과 집행을 일원화해 추진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오늘의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민족문화과에서 수행하던 국어 정책 개발 기능을 국립국어연구원으로 이관했습니다.

이로써 국립국어원은 국어 정책 개발과 국어 연구 기능을 총괄하는 언어 정책 기관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기관명에서 ‘연구’를 제외한 것은 ‘국어 연구’뿐만 아니라 ‘국어 정책 개발과 홍보’, ‘국어 생활 연구와 이바지’, ‘국어 진흥’ 등으로 기관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을 드러낸 것입니다.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국립국어원으로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연구

- 2004. 11.** '국립국어원'으로 명칭 변경
- 2005. 1.** '국어기본법' 제정
- 국어 사용 촉진
- 국어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코자 제정함
- 2006. 12.**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2007~2011) 수립
- 3대 중점 과제
(1)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구 체계 정비
(2) 동북아 지역 거점 기반 확충
(3) 세계화·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을 온라인 사전 마련
- 2011. 12.**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 (2012~2016) 수립
- 5대 추진 과제**
(1)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위한 국민적 향토적 국어 능력 향상
(2) 경쟁 공평의 국어 문화 확산
(3)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 이익 증진
(4) 한국어 보급을 통한 우리말 위상 강화
(5) 우리말 문화 유산 보전과 활용 기반 마련을 통한 국어 진흥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연구

- 2016. 10.** -한국수어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힘
- 2016. 12.**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2017~2021) 수립
-5대 중점 과제
(1) 수요자 중심의 언어 정책 기반 조성
(2) 바르고 편리한 언어 환경 지원
(3) 국민 언어 생활을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 구축
(4) 한국어 확산과 교육 기반 강화
(5) 한글 문화 진흥 및 향유 확대
- 2020. 1.** '국어 정책 자료' 누리집 개통
- 2020. 8.** '모두의 말뭉치' 누리집 개통

국립국어원이 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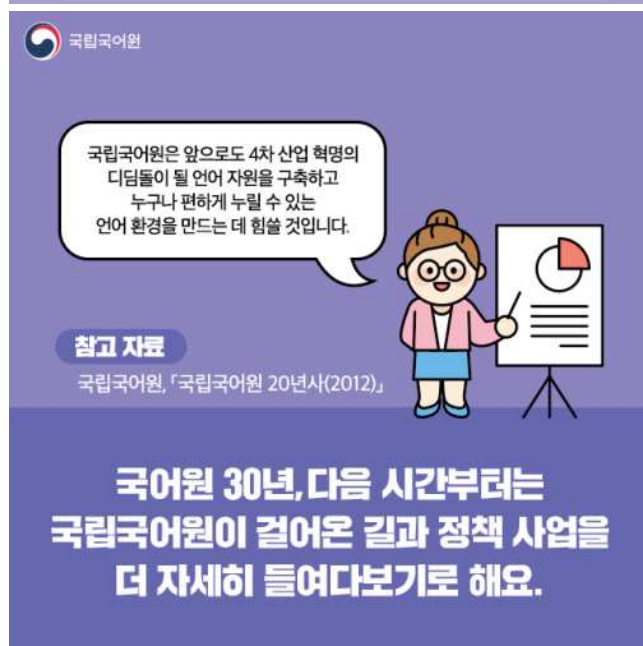
- 우리말 전문하게 어문연구과**
-어문 규범의 현실화와 편의성 증진
-국어 사용 실태와 정책 자료 조사
-남북 언어 통합 기반 구축
-지역어의 보존·활용 지원
-《표준국어대사전》 운영
-《우리말샘》 운영
- 함께 배워 교육연구과**
-다양한 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언어 소외 계층 교육 지원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 수행
- 우리말 가꾸고 이음줄에 공공언어과**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감수와 권고
-전문 용어 표준화와 정비, 공공용어 번역 지원
-매체 언어와 청소년 언어의 개선

국립국어원이 하는 일

- 우리말 세련되게 한국어진흥과**
-국내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한국어교수학습센터 운영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
-교원맞춤형 연구 프로그램 운영
-《한국어(초·중·고)》과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운영
- 우리말 품격있게 언어정보과**
-국어 말뭉치 수집·구축
-대화 요약 말뭉치 연구 분석
-유사·의미 문장 생성 말뭉치 연구 분석
-모두의 말뭉치 누리집 운영
- 또 하나의 우리말로 특수언어진흥과**
-한국수어로 소통하는 환경 조성
-편리한 점자 사용 환경 조성
-한국수어 기초 자료 구축과 수어 사전 정비

국립국어원(2004년~현재) 시기의 주요 정책 사업

- 언어 실태 조사**
-지역어 조사 실시(2004년~2020년)
-세대별 언어 활용 실태 조사 실시(2005년~2006년)
-국민 언어 인식 조사 실시(2009년, 2010년, 2015년, 2020년)
-국가별 해외 동포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실시(2017년~2018년)
-국민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 실시(2008년, 2013년, 2018년)
-북한 언어 현실 반영한 말뭉치 구축 추진(2015년~2020년)
- 동일한 한국어를 위한 준비**
-남북 언어 학술회의 시작(1996년~)
-1980~1990년대 북한 지역어 자료 디지털화(2008년)
-북한 언어 현실 반영한 말뭉치 구축 추진(2015년~2020년)



보도자료 쓰기, 이제 어렵지 않아요!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공무원들이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유형별로 알아보는 보도자료 작성 길잡이』를 발간하였다.

지난 10년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언어(보도자료) 진단 사업이 이어져 오면서, 보도자료 표준안을 마련해 달라는 부처 담당자들의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중앙행정기관에서 생산한 2,000여 건의 보도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보도자료를 유형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보도자료의 유형은 크게 정책안내형, 정보제공형, 기타로 구분하였고 보도자료에 들어가야 할 주요 항목과 갖추어야 할 형식 체계를 8가지 세부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보도자료의 유형 분류

정책안내형 보도자료	사업, 행사, 법령 등 공공 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내용을 안내하는 보도자료	① 사업안내형
		② 행사안내형
		③ 법령안내형
정보제공형 보도자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조사 결과 정보, 업무 성과 정보 등 공공 기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도자료	① 생활정보형
		② 조사정보형
		③ 성과정보형
기타	정책안내형 보도자료, 정보제공형 보도자료 외에 공공 기관의 입장이나 주요 인사의 동정을 설명하는 보도자료	① 입장설명형
		② 동정자료형

이번 책자에는 보도자료의 유형별 정보뿐만 아니라 ‘표제, 부제, 주제문(리드문), 문단 구성’ 등의 구성적인 차원과 ‘문장 종결 방식, 문장 길이, 글씨체 및 여백 설정’ 등의 형식적인 차원이 두루 담겨 있어 평소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 건축 설계 공모 운영 지침 개정 -

-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

- 26일 개장식 개최, 장보고호 출항 -

부제는 표제를 구체화하거나 보충, 강조, 요약하는 내용이므로 명사나 명사형 어미로 끝마치는 '명사문 형식'을 취하여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부제의 개수는 1개가 가장 적절하다. 내용의 특성에 따라 1개 이상의 부제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2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부제 없이 표제만으로도 본문 의 내용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 <부제 문장 형식>

▶ 여백: 왼쪽 20mm, 오른쪽 20mm, 위쪽 15mm, 머리말 10mm, 아래쪽 15mm, 꼬리말 10mm

▶ 줄 간격: 180%

▶ 보도자료 정보: 돌음 12pt

▶ 표제: **HY헤드라인M 20pt 굵은 글씨**

▶ 부제: **HY헤드라인M 15pt**

▶ 본문: 휴먼명조 14pt로 작성

준말이나 보충 설명 등 괄호로 제시하는 부분은 휴먼명조 12pt로 작성

▶ 주석: 돌음 12pt로 작성하며, 본문 보충 설명을 아래에 따로 적는 경우에도 돌음 12pt로 작성.

내용이 두 줄 이상인 경우에는 Shift+Tab 키를 사용하여 둘째 줄부터 주석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

▲ <글씨체, 글씨 크기, 여백 제시 형식>

소강춘 국립국어원장은 “보도자료는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공문서이니만큼 친절하면서도 쉬운 언어로 작성해야 한다.”라면서 “『유형별로 알아보는 보도자료 작성 길잡이』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도자료를 작성하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의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유형별로 알아보는 보도자료 작성 길잡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원문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 자료 > 연구·조사 자료 > 기타 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우리 국민의 언어 의식, 현재 모습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국민들의 국어 및 국어정책에 대한 관심 수준, 언어 사용 및 언어 교육 문제 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5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제4차 조사는 국립국어원이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 만 20세~69세 성인 남녀
표본 수	5,000명
조사 내용	국어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 언어 사용, 언어 교육과 언어 정책
조사 방법	1:1 개별 면접 조사
조사 기간	2020. 9. 21.~11. 18.
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에서 $\pm 1.4\%p$
* 이 조사는 조사 당시의 지역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하였음.	

맞춤법과 발음, 단어의 유래와 의미에 대한 관심 50%p 가까이 높아져

우리 국민의 55.4%는 국어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여 2010년 제2차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05년 60.9%→’10년 45.6%→’15년 53.0%→’20년 55.4%) 그 가운데 말하기(78.5%), 언어 예절(73.9%), 맞춤법과 발음(69.8%), 글쓰기(69.1%) 분야에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말하기’와 ‘언어 예절’은 대화나 회의 상황과 같이 직접 소통할 때 필요한 능력으로, 국민들은 인간관계와 사회 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맞춤법과 발음(’05년 19.9%→’20년 69.8%), 단어의 의미와 유래(’05년 4.2%→’20년 53.7%) 분야의 관심도는 지난 15년 사이에 50%p 가까이 높아졌다.

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어문 규범을 지키는 것은 필수적인 소양이 되었고, 국어에 대한 관심의 폭도 현대에 머물지 않고 과거로까지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욕설과 비속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는 답변 늘어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5명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자주 또는 가끔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욕설: 46.9%, 비속어: 48.1%). 그런데 본인에 대한 질문에는 10명 중 2~3명만 욕설이나 비속어를 자주 또는 가끔 사용한다고 응답 하였다(욕설: 24.8%, 비속어: 30.4%).

한편,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32.6%가 기분이 나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답했고, 23.1%는 습관적으로, 22%는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답했다. 2005년 결과와 비교하면, 기분 나쁨 표현(’05년 55.6%→’20년 32.6%)은 크게 줄어들고,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는 답변은 21.9%p나 높아졌다(’05년 1.2%→’10년 14.7%→’20년 23.1%).

온라인 소통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욕설과 비속어가 쉽게 전파되고, 일상적으로 이런 말들을 접하게 되면서 문제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어 사용자는 줄었으나 지역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높아져

평소 표준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56.7%로 2005년에 비해 9.1%p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05년 47.6%→'20년 56.7%).

그동안 교육, 방송 등 공적 영역에서 표준어가 사용되고,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표준어 사용에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준어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어 사용자의 감소세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역어 사용자에게 친근하고 편안함을 느낀다는 답변은 79.9%로, 최근 10년 사이에 21%p 상승했다('10년 58.9%→'15년 42.5%→'20년 79.9%). 특히 모든 세대에서 70% 이상이 지역어 사용자에게 친근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우리 사회가 언어적 다양성과 지역 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문·방송에서 나오는 말 중 의미 몰라 곤란한 경험 89%

우리 국민의 89%는 신문·방송에서 나오는 말 중 의미를 몰라 곤란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가끔 있다: 52.7%, 자주 있다: 36.3%). 특히 자주 있다는 응답은 최근 5년 사이 30.7%p 증가했다. 그리고 곤란함을 겪은 말로는 전문용어(53.3%), 어려운 한자어(46.3%), 신조어(43.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상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전문용어와 어려운 한자어가 다수 사용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측된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 '쉽다'가 33.4%, '어렵다'가 22.9%

이번 조사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의 난이도를 어떻게 느끼는지도 알아보았는데, '쉽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3.4%였고, '어렵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2.9%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공공언어를 어렵게 여기는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공공언어를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렵게 여기는 사람보다 많게 나와,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 온 공공언어 개선 활동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공언어가 되도록 더욱 쉬운 말로 쓸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공공언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두 개씩 꼽아 보라는 질문에는 '복잡하고 길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낯선 한자어 등 어려운 단어 사용'이 각각 50.8%와 48.2%를 기록했다.

공공언어에서 간결한 문장 쓰기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대체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는 <제4차 국어발전 기본계획(2022~2026)>에 반영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어문 규범을 쉽게 이해하고 우리말 역사 자료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한편, 지역어 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욕설과 비속어 사용을 줄이는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며, 공공언어와 신문·방송 언어가 모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더욱 쉽고 간결해질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이번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결과는 <제4차 국어발전 기본계획(2022~2026)>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며, 더욱 면밀한 검토와 후속 연구를 거쳐 우리 언어 현실과 정책 수요자에게 딱 들어맞는 맞춤형 국어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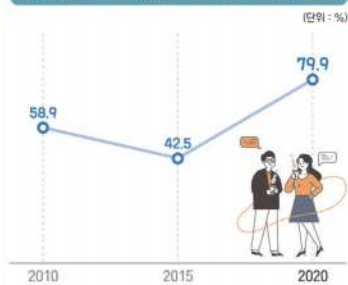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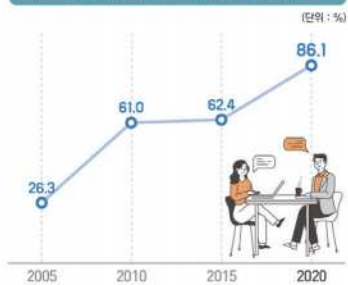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 표준어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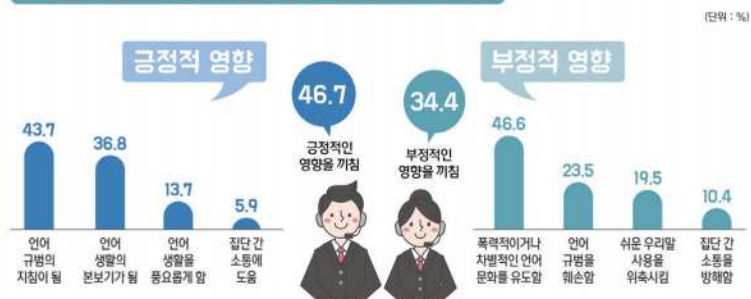
지역 방언 사용자와 대화 시 친근한 느낌



본인의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신문·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 곤란했던 경험



인미를 몰라서 곤란함을 겪은 말(중복 응답)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



공공언어에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중복 응답)



이주민과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의 정책 지원 필요성



사람들이 모이는 곳 핵심 점포



우리말 다들기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들기

국립국어원

#앵커_테넌트_대체어_핵심_점포

사람들이 모이는 곳
핵심 점포
앵커 테넌트

상권의 강자, **핵심점포**를 아시나요?

핵심점포는 상가 등에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점포를 말해요.

우리말 다들기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들기

국립국어원

#프랜차이즈_대체어_가맹점 #브랜드숍_대체어_전속매장

대표적인 **핵심점포**로는 유명 **가맹점**이나 **전속매장**, 대형 서점 등이 있죠.

핵심점포가 위치한 근처는
상권이 활발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말 다들기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들기

국립국어원

#랜드마크_대체어_상징_건물

많은 상점이 모여들며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건물**로
발돋움하기도 해요.

많은 사람이 모여
상권을 이루는 **핵심점포**!

우리말 다들기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들기

국립국어원

오늘의 다들은 말

앵커 테넌트 (anchor tenant) → **핵심 점포**
프랜차이즈 (franchise) → **가맹점**
브랜드숍 (brand shop) → **전속매장**
쇼핑몰 (shopping mall) → **상점가**
랜드마크 (landmark) → **상징물, 상징 건물**

다들은 말도 더 많은 사람이
널리 사용해 쓰기 쉽고 쓰기 쉬운
우리말로 자리 잡으면 좋겠어요.

비대면 시대의 소비 실시간 소통 판매



**비대면 시대의 소비
실시간 소통 판매**

라이브 커머스

#언택트 대체어 비대면 #아이티(IT) 대체어 정보 기술

비대면 시대와 정보 기술의 발달이 만나
새로운 소비 방식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중 요즘 인기를 끄는
'실시간 소통 판매'를 아시나요?

#라이브 커머스 대체어 실시간 소통 판매

#라이브 커머스 대체어 실시간 소통 판매

실시간 소통 판매는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물건을
사고파는 방식의 전자 상거래입니다.

#스트리밍 대체어 실시간 재생

실시간 재생 영상을 보며
구매자는 궁금한 것을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고,
판매자도 구매자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에이아르(AR) 대체어 증강 현실

구매하기 전, 증강 현실로
직접 제품을 체험해 보기도 하는데요.

증강 현실을 이용하면 구매하려는
옷을 입거나 화장품을 바른 모습을
미리 볼 수 있어서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죠.

새로운 기술이 금세 익숙해지는 것처럼
다듬은 말들도 우리 삶 속에 스며들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다듬은 말

언택트 → 비대면

라이브 커머스 → 실시간 소통 판매

스트리밍 → 실시간 재생

아이티(IT) → 정보 기술

에이아르(AR) → 증강 현실

‘메주’와 ‘치즈’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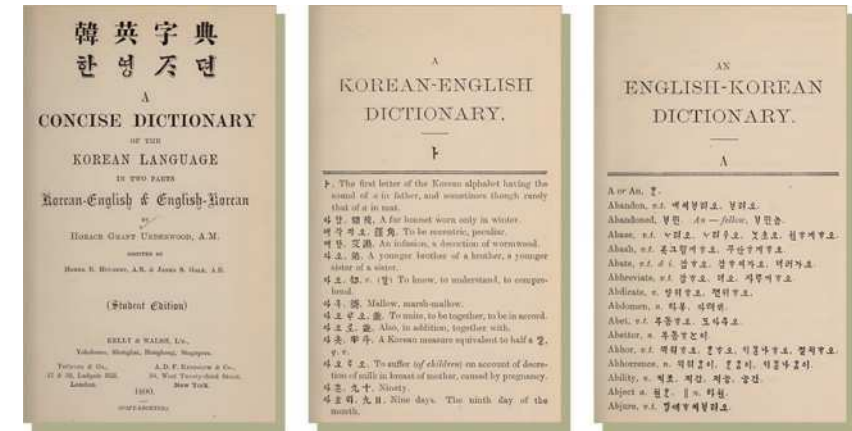
- 언더우드의 (1890)에 나타난 한국어와 영어의 대응 관계 -



글: 안예리(한국학중앙연구원 부교수)

간장, 된장, 고추장의 원료가 되는 메주는 한국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식재료이다. 한편, 우유를 발효해서 만드는 치즈는 서양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식재료이다. 그런데 ‘메주’와 ‘치즈’가 만났다니, 무슨 신종 음식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다. ‘메주’와 ‘치즈’의 만남은 식탁이 아닌 사전에서 이루어졌다.

1890년 요코하마에서 출판된 언더우드(H. G. Underwood)의 은 한국어와 영어를 대응시킨 최초의 사전이다. 제1부 한영사전과 제2부 영한사전으로 구성된 이 사전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어를 배우던 외국인들과 영어를 배우던 한국인들에게 널리 활용되었다.



▲ <그림 1> 『한영사전』 (1890) 표지와 제1부 한영사전 및 제2부 영한사전 첫 쪽

1859년 런던에서 태어난 언더우드는 1872년 미국으로 이주해 뉴욕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조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임명된 언더우드는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으로 입국한 뒤 목회뿐 아니라 의료 활동, 고아원 설립, 성경 번역, 지방 선교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갔다.

언더우드는 한국어 교사를 고용해 틈틈이 한국어를 배웠는데 당시에는 한국어 문법서나 사전이 없었기 때문에 학습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언더우드는 자신이 직접 사전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수년간 단어를 수집하고 사전 원고를 집필했다.

비록 소사전이긴 했지만 수천 개의 단어를 상대 언어로 정확히 풀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확한 대응어가 존재하지 않는 단어의 경우, 소통의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동원해야 했다. 영어의 ‘cheese’를 메주에 빗대어 풀이한 것도 그런 사례 중 하나이다.

Cheese, *n.* 소젖메주.

▲ <그림 2> 『한영사전』 제2부 ‘Cheese’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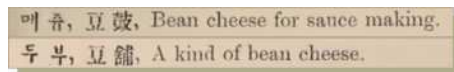
『한영사전』이 편찬될 당시 치즈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낯선 음식이었다. 치즈를 본 적이 없는 한국인들에게 그 뜻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언더우드는 ‘소젖메주’라는 표현을 고안해 냈다. ‘소젖’은 치즈의 주재료인 우유를 나타낸 것이고 ‘메주’는 치즈의 모양을 한국의 메주에 빗댄 것이다.



▲<그림 3> 미국 잡지 『Harpers Monthly』 51호(1875년 발행) “Butter and Cheese”에 실린 치즈 삽화

메주와 치즈의 만남은 『한영조언』 제1부의 ‘메쥬’와 ‘두부’ 항목에서도 확 인된다. 언더우드는 메주를 ‘소스를 만들기 위한 콩 치즈(Bean cheese for sauce making)’라고 풀이하였고, 두부를 ‘콩 치즈의 일종(A kind of bean cheese)’이라고 풀이 하였다.

『한영조언』의 이러한 풀이는 서로 다른 두 문화 간의 접촉이 시작되던 당시의 언어적 풍경을 생생히 보여 준다. 메주를 처음 본 서양인이 ‘치즈처럼 생겼는데 재료가 다르네!’ 하는 모습도, 치즈를 처음 본 한국인이 ‘메주처럼 생겼는데 재료가 다르 네!’ 하는 모습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림 3> 『한영조언』 제1부 ‘메쥬’와 ‘두부’ 항목

이처럼 유사한 개념을 활용하여 두 언어 간의 상호 이해를 도모한 흔적은 『한영조언』 전반에서 두루 확인된다. 서양의 간 식인 비스킷을 ‘작은 조각으로 구운 떡’이라고 한 것이나 사탕을 ‘엿’이라고 한 것도 식문화의 차이를 유사 개념을 활용해 연 결 지은 사례이다. 서양식 모자를 한국의 ‘갓’에 대응시킨 것이나 외투를 ‘두루마기’에, 양말을 ‘버선’에 대응시킨 것도 같은 경우이다. 심벌즈를 ‘팽과리’로 풀이한 것이나 베란다를 ‘툃마루’로 풀이한 것도 흥미롭다.

『한영조언』(1890)		현대 표준어
Biscuit	썩, 적은 조각으로 군 썩	비스킷
Candy	엿	사탕
Hat	갓, 전립, 병거지	모자
Overcoat	두루막이	외투
Sock	보션	양말
Cymbal	팽과리	심벌즈
Verandah	툃마루	베란다

한편, 『한영조언』의 다음과 같은 기술을 보면, 오늘날 한국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가 언더우드의 사전 편찬 당시에는 널리 쓰이던 말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한영조언』(1890)		현대 표준어
Colony	본국에서 타국 땅을 차차 설립한 고을	식민지(植民地)
Economy	절용후는 것, 앓기는 것, 규모	경제(經濟)
Emigrant	타국에 이사한 이	이민자(移民者)
Export	타국으로 보내오	수출(輸出)하다
Factory	덤, 물건 돈드는 집	공장(工場)
Innovator	풍속 밋고는 이	혁신가(革新家)
Pollution	더러운 것, 더럽게 후는 것	오염(汚染)

근대의 산업 및 제도와 관련된 ‘식민지, 경제, 이민, 수출, 공장, 혁신, 오염’은 20세기 동안 한국어 어휘 체계에 정착한 근대 신어이다. 해당 영어 단어에 대한 한국어의 대응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언더우드는 영어 단어의 의미를 쉬운 한국어로 풀어서 서술함으로써 근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영어의 ‘factory’는 ‘물건 만드는 집’으로 풀이되다가 점차 ‘공장’과 등치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이처럼 전에는 없던 새로운 문물과 제도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표현하는 신어들이 우후죽순 생겨 났고,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누적된 끝에 현대 한국어 어휘 체계의 근간이 확립되었다. 언더우드의 『한영조언』은 그러한 변화의 출발점에 선 한국어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최초의 한영·영한사전의 지면에 나타난 한국어와 영어의 대응 관계는 이후 한국어 어휘 체계에 나타날 대대적인 변화 를 예고해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문해 교육으로 세상 보는 눈을 뜨게 한다

‘난곡사랑의집’ 배지용 대표



‘난곡사랑의집’은 1970년대부터 서울시 관악구 난곡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마을학교, 어르신 서로도움 배움터, 성인 문해학교 등의 교육을 제공해 온 마을학교다. 그중 ‘성인문해학교’는 한글을 모르는 성인들에게 한글을 읽는 방법과 글쓰기를 가르치는 과정이다.

문해율이 99%에 달한다는 지금, 문해 교육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50년 가까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난곡사랑의집을 찾아, 문해 교육의 의미와 중요성, 앞으로의 방향에 관한 배지용 대표의 생각을 들어 본다.

문해 교육에 대한 관점부터 달라져야

《침표, 마침표.》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문해 교육은 주로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난곡사랑의집도 70년대부터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난곡이었을까요?

배지용

원래 난곡은 달동네였습니다. 1969년 청계천이 재개발되면서 그곳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난곡으로 이주해 달동네를 이루었고, 인근 ‘구로공단(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많이 살고 있었 습니다. 주거비가 저렴한 데다 구로공단까지 도보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난곡사랑의집’은 남부경찰서에서 운영한 ‘남부야학’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봉사 차원에서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교육을 했던 것이 출발이었죠.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서며 구로공단이 해체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야학 활동도 주춤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역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바로 문해 학습자였습니다. 처음 문해 교육을 시작할 당시 학습자들의 연령대는 40대부터 70대까지 무척 폭넓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흘러 연령으로는 60~80대로 축소되었지만 2000년대부터는 결혼이민자들이 참여하며 문해 교육의 대상은 오히려 다양해졌습니다.



《선표, 마침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비문해율은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기관에서 문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용

난곡사랑의집에서 문해 교육을 시작하던 90년대에도, 평생학습의 측면에서 문해 교육이 법제화된 2007년에도 “요새 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문해 교육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소위 말하는 ‘까막눈’은 1% 미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릅니다. 실제로 문해 교육을 받고도 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은 30~40%나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문해율을 추적하는 근거는 5년마다 한 번씩 진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인구가 200여만 명,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인구는 500만 명이나 됩니다. 또한 2017년 국가 문해 교육센터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7.2%인 약 311만 명의 교육 수준이 초등학교 1~2학년 정도의 수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비문해인들은 대부분 글을 모른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조사에도 아주 소극적으로 임했을 가능성이 크죠. 실제 비문해인의 비율은 수치로 추정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선표, 마침표.》

비문해인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의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실제 문해 교육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배지용

처음 문해 교육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저 역시 비문해인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울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도 비문해인이 많습니다. ‘여성들은 공부할 필요 없다’는 과거의 인식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함에도 학교를 보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분들은 글자를 모른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일부러 먼 지역까지 찾아가 문해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농어촌에는 더 많은 수가 글을 모릅니다. 한 동네 전체가 비문해인인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들 중 대다수가 여성입니다. 이렇게 보면 문해 교육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문해 교육은 단지 경제적이거나 시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전 사회적인 문제죠.

비문해 청소년 문제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0여 년 전, 밤에 20대 중반의 한 청년이 찾아온 적이 있는데요. 이 청년은 과거 제대로 된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소년원에 들어가며 글을 배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의류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손님이 영수증을 써 달라고 한 겁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져 도망치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청년뿐만이 아닙니다. 글자를 읽을 수 있어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글자를 아는 게 아니라 글자의 모양을 사진으로 찍듯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는 나이가 어릴수록, 성인 남성일수록 밖으로 드러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계층의 비문해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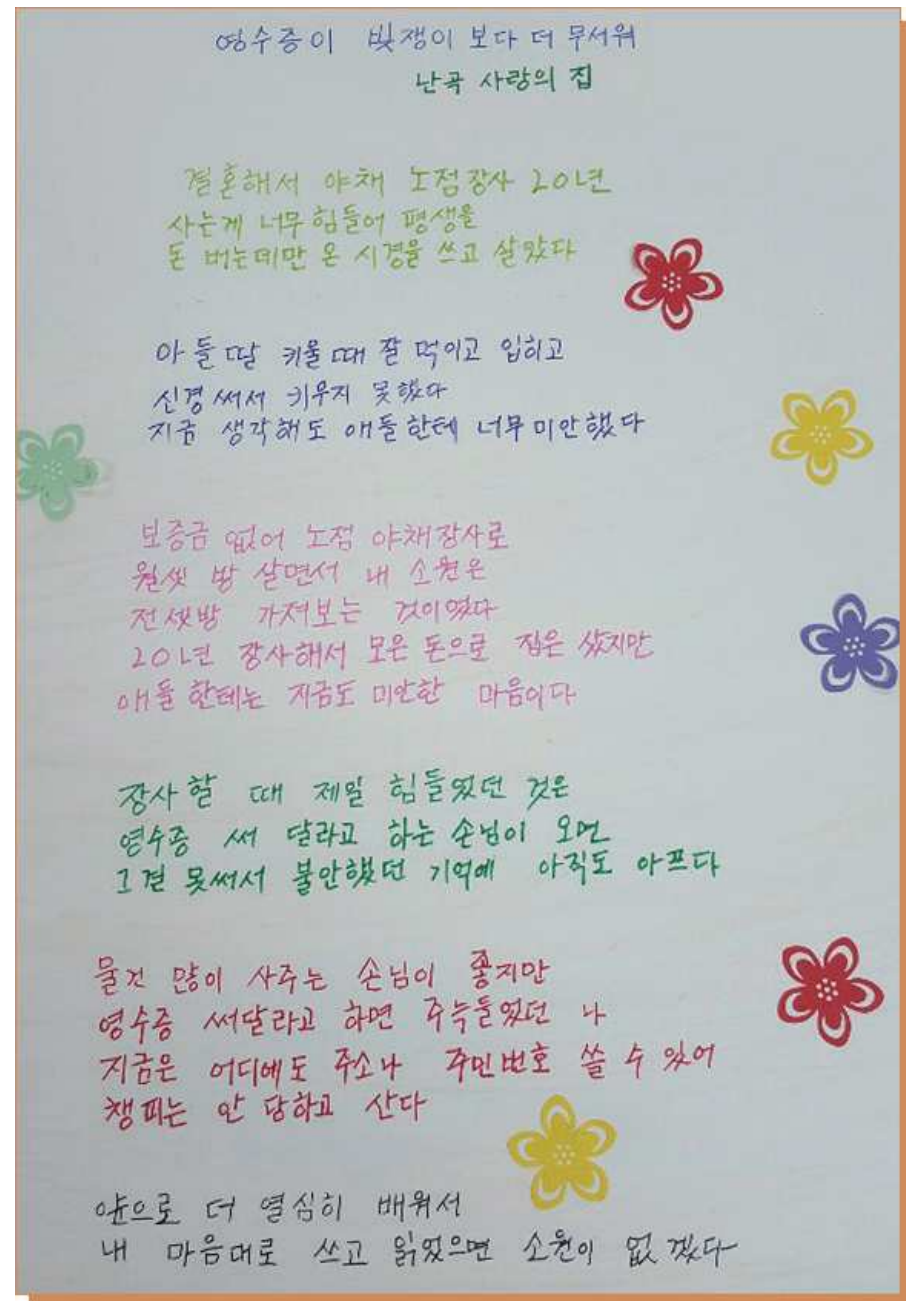
문해 교육, 글자를 익히고 자존감을 세우는 일

《선표, 마침표.》

많은 사람이 비문해 학습자들이 쓴 ‘시’에 감동합니다. 여러 문학의 분야가 있고, 문학이 아닌 글을 쓸 수도 있는데 ‘시’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지용

‘시’라기보다 사실 ‘짧은 글’입니다. 기초 문해 교육을 받는 분들이 서술어가 완성된 형태의 글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낮더라도 짧은 글을 편하게 쓰도록 하죠. 마침 ‘시’가 허용이 많은 문학이다 보니 그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마치 시처럼 보이는 겁니다. ‘시’를 한 편 썼다고 하면 학습자 입장에서는 훨씬 자부심도 가질 테니, 그렇게 쓴 글을 모아 시화전을 열고는 하는 것이죠.



▲ 문해학교 학생이 쓴 시

《침표, 마침표.》

이렇게 짧은 글 한 편을 쓰기까지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지용

비문해 학습자가 넘어야 할 큰 산 중의 하나는 당소리와 홀소리가 합쳐져 글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습자는 한자를 외우듯 글자를 하나하나 외우는데, 이런 방식으로서는 더 높은 수준에 다다르기가 어렵죠. 또한 글을 소리내 읽을 때 연음 법칙 등이 작용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먹었습니다’를 읽으면 [머견쌔니다]가 되는데, 왜 글과 말이 다른지 헷갈리는 것이죠.

기초 문해 단계를 넘어서면 어휘력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사실상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물건에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더하기·빼기 등의 기호를 이해하는 것, 숫자를 표기할 때의 자릿값 개념 등은 글자를 읽는 차원을 넘어서 새롭게 학습해야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배울 때도 새롭게 배웁니다. 하지만 성인들은 살아오며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죠. 알고 있는 것이 많은 만큼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도 높는데 문해 교육으로 배운 기초 지식으로는 그 욕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는 학습자가 상당히 많아요.

초등 기초 과정을 3단계로 나눌 때 1단계에서는 글자를, 2단계에서는 짧은 글을 배웁니다. 그 과정 중에 한두 줄이라도 일기를 써 오도록 과제를 내 주는데요. 열에 아홉은 숙제를 못 해옵니다. 일기를 썼다가도 쓴 것이 맞는지를 검열하면서 하나씩 지우다 보면 결국 다 지우게 되는 것이죠. 문해 교육을 받는다는 소문을 낼 수 없으니 주변에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중등 과정만 되어도 틀린 걸 아무렇지 않게 지우고 다시 씁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해 교육이 자존감의 문제와 그만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의 과제는 바로 이러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을까요? 시, 음악, 그림 등의 수업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자만 교육하면 맞고 틀리는 것이 평가의 잣대가 되지만, 다양한 수업을 병행하면 평가 요소가 다양해질 수 있으니까요. 자서전을 써 보도록 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과거를 써 내려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원망과 죄책감의 양가감정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는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돕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치유가 이루어지죠. 이처럼 지금도 문해 교육은 비단 글자에 한정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측면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난곡사랑의집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모습

문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통’

《침표, 마침표.》

오늘날 문해 교육의 의미는 ‘글자를 읽고 쓰는 것’에서 ‘인쇄 또는 문서화 된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활용하는 능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학습자들이 글자를 읽고 쓰는 것을 넘어서 평생 학습으로 이어 가기 위해서, 문해 교육의 현장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배지용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실력을 갖춘 교사’가 많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문해 교육을 하는 사람은 전문성이나 헌신의 마음에서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해 교육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전문 역량을 기르도록 할 체계도 필요하죠.

두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기초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즉 ‘학교’가 필요합니다. 이때 학교의 의미를 좀 더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문해 교육을 받으면 학력 인정이 되는데요. 사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학력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졸업장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생활과 관련한 문해 교육입니다.

지난 한 해 학습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디지털 사용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족들을 만날 수 없으니 스마트폰으로나마 소통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상당히 높았죠. 하지만 실생활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만한 환경이 안 되거나, 방법을 몰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인 안내기 역시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은행을 갈 때도 현금 입출금기를 사용하고 공공기관의 민원 처리도 모두 기계로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글자를 읽고 쓰는 능력이 실생활로까지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침표, 마침표.》

끝으로 문해학교를 운영하며 기억에 남는, 혹은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배지용

저희 반 학습자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병문안을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사고가 난 순간 정신이 가물거리면서도 물이 마시고 싶었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한 구조대원의 손을 더듬어 잡고 손바닥에 ‘물’이라고 썼죠. 다행히 그 구조대원이 물을 가져다주었으니 글자를 틀리지 않은 것이라며 신이 나서 자랑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그 어르신은 지금까지 그 기억을 간직하고 계시겠죠.

공부하며 “세상에 나 말고 다른 많은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처음 기초 문해 교육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자신만 봐주기를 바라고, 자리 때문에 서로 다 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짜깁’이라는 단어를 배우면서 교실 안에서의 관계를 이해해 나가죠. 언어의 확장은 곧 관계의 확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의 존재를 이해하고 사람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찾아 나가는 것은 물론, ‘우리’와 ‘사회’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사회에 기여할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문해 교육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해 교육은 기능적으로 글자를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인간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글자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문해 교육을 받는다면 그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뀔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더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가 될 겁니다. 문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소통’에 있기 때문입니다.

글: 강은진

사진: 김영길

우리말 풀기



봄은 바람에서도 오지만 마음에서도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춥지만 «شم표, 마침표.»와 함께 마음만큼은 포근한 하루 보내세요.

문제 1

‘요새, 그새, 밤새, 어느새’에서 ‘새’는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의 준말입니다.

단서 실전 국어 표기법

문제 2

□□□□의 유형은 크게 정책안내형, 정보제공형, 기타로 구분하였고
□□□□에 들어가야 할 주요 항목과 갖추어야 할 형식 체계를
8가지 세부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단서 국어원 소식

문제 3

□□□□는 상가 등에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점포를 말해요.
대표적인 □□□□로는
유명 가맹점이나 전속매장, 대형 서점 등이 있죠.

단서 우리말 다듬기

문제 4

비록 소사전이긴 했지만 수천 개의 단어를
□□□□로 정확히 풀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확한 대응어가 존재하지 않는 단어의 경우,
소통의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동원해야 했다.

단서 100년 전 우리말 풍경

문제 5

국립국어연구원은
2004년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단서 국어원 30년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선물

당첨자 열 분께는 음료 교환권을 드립니다.



응모 기간

2021. 3. 2.~2021. 3. 16.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심표, 마침표.>> 2021년 4월 호에 공고함.

2021년 2월 호 우리말 달인 당첨자

장*준(4399) 박*열(7616) 이*연(7658) 이*현(7887)
권*도(2659) 백*희(1238) 박*경(6079) 이*범(9109)
서*연(4685) 조*진(5234)

우리말 풀기



아직은 겨울의 여운이 있다지만 곳곳에서 봄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주변 풍경도 더 유심히 보게 되죠.
햇볕이 따뜻한 날에는 음료 한 잔 손에 들고 산책이라도 해 보세요.
«섶표, 마침표.»를 읽고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면 음료 교환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1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말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실이었다.
☐이란 그 시작과 끝 온통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고스란히 내비치는 거울이다.

단서 읽기 좋은 글, 듣기 좋은 말

문제 2

이처럼 “우리말샘”은 이용자와 사전 전문가의 협업으로
끊임없이 다듬어지는 ‘☐☐☐☐☐☐’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 감수가 완료된 ‘전문가 감수 정보’ 역시
다시 다른 이용자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단서 사전 두 배로 즐기기

문제 3

공공언어를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렵게 여기는 사람보다 많게 나와,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 온 ☐☐☐☐☐☐ 활동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서 국어원 소식

문제 4

비대면 시대와 정보 기술의 발달이 만나
새로운 소비 방식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는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물건을 사고파는 방식의 전자 상거래입니다.

단서 우리말 다듬기

문제 5

□□□□은 기능적으로 글자를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인간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글자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단서 우리말, 그리고 사람

2021년 2월 호 우리말 달인 당첨자

장*준(4399) 박*열(7616) 이*연(7658) 이*현(7887)
권*도(2659) 백*희(1238) 박*경(6079) 이*범(9109)
서*연(4685) 조*진(5234)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응모 기간

2021. 3. 16.~2021. 4. 6.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쉽표, 마침표.>> 2021년 4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는 음료 교환권을 드립니다.

